

# YB '국민밴드' 틀 벗어나 자유로워진 앨범 끊임없는 음악의 진화

## 정규 10집 '트와일라잇 스테이트' 발매

“너를 보내고”, “잊을게”, “나는 나비” 등 술한 국민적 히트곡을 보유한 밴드 YB.

“국민밴드” 수식어를 갖고 사회성 짙은 음악도 많이 선보였던 이들이 지난달 발매한 정규 10집 ‘트와일라잇 스테이트’(Twilight State)에선 ‘사소한 감정’들을 꼬집어냈다.

최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YB 보컬 윤도현(47)은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밴드라는 인식을 스스로 하다 보니 곡을 쓸 때도 그런 걸 항상 생각했다. 이번 앨범은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만들었다”고 전했다. 국민밴드 타이틀에 부담이 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고마운 수식어’라며 “하나의 틀에 계속 갇혀서 음악을 하는 것보다 자주 뛰어넘으려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YB는 윤도현(보컬), 박태희(베이스), 김진원(드럼), 허준(기타), 스킷 할로웰(기타) 등 5인조 밴드다. 정규앨범을 낸 건 2013년 9집 ‘릴 임펄스’(Reel Impulse) 이후 6년 만이다.

앨범 타이틀의 ‘황혼(twilight)처럼’ 문환적인 분위기가 전반에 흐르는 가운데 얼터너티브, 사이키델릭, 포크록 등 다양한 장르를 13곡에 구사했다.

기타리스트 허준(45)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이전과 달리 미리 느낌을 결정하지 않은 채 “나오는 대로 쏟아내 보고” 곡을 추렸다.

“땀겨리”, “생일”, “나는 상수역이 좋다” 등 세 타이틀곡도 각각 개성이 있다. 허준은 “땀겨리”는 저희 진화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곡, “생일”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담은 곡, “나는 상수역이 좋다”는 대중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느낌의 곡”이라고 설명했다.

6년 만의 정규앨범 탄생 과정에는 산고도 있었다. 2년 전 윤도현은 연말 투어 공연을 과감히 포기하고 경기도 양평 산속 컨테이너에서 두 달 동안 머물며 작곡과 편곡에 몰두했다.

“첫 사흘째는 막막했어요. 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고 싶고, 밤만 되면 무섭고...시간이 좀 지나니까 조금씩 활력이 생기면서 겁도 없어지고 점점 편해졌어



6년 만에 정규 10집을 내고 돌아온 YB

요. 그러면서 곡이 외장창 나오더라고요.”(윤도현) 녹음은 제주도 한 스튜디오에서 했다. 매니저도 없이 멤버들끼리만 가서 작업했는데 “마음이 너무 편했다”고 윤도현은 전했다. 윤도현이 ‘반딧불...그 슬픔에 대한 질문’의 보컬을 녹음할 땐 마침 녹음실 유리창 밖에 펼쳐진 바다에 노을이 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허준은 “정말 몇 테이크 안 하고 끝났다. 너무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그 순간을 돌이켰다.

그렇게 작업한 이번 앨범에 나름대로 충만함을 느꼈다는 밴드는 공연과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심도 내비쳤다. 윤도현은 “신곡이 안 나오다 보니 더 지쳐 있었는데, 새로운 곡들을 되게 치열하게 (작업)하면서 에너지가 생겼다”며 신곡 전곡을 선보일 공연이 엄정하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YB는 이번 앨범 13개 트랙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젊은 영상 제작자와 협업하고 있다. 현재까지 6곡에 대한 영상 작업이 끝났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음악 지형에 대한 YB의 생각은 어떨까. 드러머 김진원(49)은 밴드 음악을 내세운 아이들에 대한 질문에 “아이들이 연주를 하는 밴드를 보여주는 건 상당히 좋다”며 “어린 친구들이 그런 음악적인 형태를 보는 건데 밴드 하는 입장에선 저희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는 대답을 내놨다.

허준은 “YB 음악의 진화”에 대해서도 “저희 이야기를 요즘의 언어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킬 건 지키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저희 나름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진화”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밴드 YB 윤도현이 정규 10집 '트와일라잇 스테이트' 발매 스케이스에서 열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배우 윤정희, 알츠하이머 심각”

### “딸 얼굴도 구분 못할 정도”

배우 윤정희(75)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 부병 중이다.

10일 백건우의 내한 공연을 담당하는 공연기획사 빈제로에 따르면 윤정희는 최근 자녀와 동생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알츠하이머가 심각한 상황이다.

요리하는 법도 있고, 밥 먹고 나면 다시 밥 먹자고 하는 정도까지 악화했다고 빈제로 측은 전했다.

최근 병세가 심각해져 주로 딸 진희 씨 집에 머물고 있다. 윤정희의 남편 백건우와 딸 진희 씨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독성을 가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 속에 과도하게 쌓이거나 뇌세포의 골격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우 단백질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졌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는 중장년층에서부터 발병률이 높아진다. 75~79세는 60~64세보다 치매 위험이 5.8배 높다.



윤정희

윤정희가 알츠하이머에 시달린 건 약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동 감독의 ‘시’(2010)에서 알츠하이머 환자 역할을 맡았을 때와 비슷한 시

기다. 윤정희는 당시 치매로 기억이 망가져 가던 ‘미자’역을 맡아 15년 만에 영화계에 복귀했다. 그해 칸 영화제에 초청됐고,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받았다.

한국 영화의 황금기로 불리는 1960년대 문호, 남정임과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연 그는 단역 혹은 조연부터 시작한 문호, 남정임과는 달리 첫 영화부터 주연을 꿰차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그는 지금까지 330여 편에 출연했다. 그동안 대중상 여우주연상 등 24차례에 걸쳐 각종 영화상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 낙원으로 향하는 동행...EBS '가을산 표류기'

11~15일 밤 9시 30분

EBS는 단풍이 화려하게 물든 가을산을 담은 다큐멘터리 '한국기행 - 가을산 표류기'를 11일부터 15일까지 매일 밤 방송한다고 10일 밝혔다.

1부에서는 아산의 광덕산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김용관 씨를 만난다. 20년간 광덕산 지킴이로 살아온 김씨는 하루부터 열까지 모든 걸 혼자서 해낸다. 제작진은 자연의 넉넉한 품에서 행복하게 사는 김씨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2부 설악산은 단풍을 만나러 온 두 청년 유튜버 장현길, 김민곤 씨의 가을 계곡 감상법을 듣는다. 그밖에 가을 소풍을 떠나는 스님들의 음식 연일밥과 감자미



역구 맛을 느낀다.

이밖에도 인제 가을산의 잣 수확관, 산을 누비는 약초꾼, 소백산의 오지마을 주민 등 가을산을 찾는 사람들의 '산 이야기'를 다뤄볼 수 있다.

11~15일 밤 9시 30분 EBS 1TV 방송.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50 2019 FIFA U-17 월드컵 <8강전, 대한민국:멕시코>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40 2019 FIFA U-17 월드컵 <8강전, 대한민국:멕시코>	25 KBC 모닝 730 50 2019 U-17 월드컵 <8강, 대한민국:멕시코>
8	25 아침마당			
9	30 KBS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무한리플 샐러드	00 기본 좋은 날 45 UHD 특선 드라마 W	00 좋은아침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조선로코-녹두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전국시대(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정재영의 이슈IN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가 놀자 스페셜 50 뽀뽀뽀 모두가 놀자	
4	00 시사간건	00 무한리플 샐러드(재)	20 언니네 샐롱 스페셜	00 최강 1교시(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썸바이벌 1+1(재)	00 5 MBC 뉴스 25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바다의 경고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탐나는 광주사전 -2018 역사퀴즈왕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50 2019 WBSC 프리미어 12 슈퍼라운드 <대한민국:미국>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45 우아한 그녀	30 MBC 뉴스데스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1주년 특집 옥탑방의 문제아들 <장윤정, 도경환>	55 스트레이트	
9	00 KBS 뉴스 9		50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10	00 가요무대	00 조선로코-녹두전		30 SBS 8 뉴스 50 KBC 8 뉴스
11	00 더 라이브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개는 훌륭하다	10 언니네 샐롱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UHD 영상 스페셜 산책	30 나이트 라인

## EBS1

07:00 로보카 폴리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별일 없이 산다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동댕 유치원	14:45 물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띠띠뽀 띠띠뽀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9:00 출동! 슈퍼윙스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오지 말레이 반도 -숨겨진 정글을 만나다, 바투쿠라우>
09:15 마샤와 곰	15:55 출동! 슈퍼윙스(재)	21:30 한국기행 <가을산 표류기 1부 광덕산, 그 남자의 가을>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크프라임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샤와 곰(재)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댕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3:35 별일 없이 산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띠띠뽀 띠띠뽀(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1일(음 10월 15일 壬子) ☎ 010-9790-8237

<p>36년생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당대지사 앞에서 당황하게 된다. 48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라. 60년생 세밀하게 살펴보면 중차대함을 맞게 된다. 72년생 바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가 잦아지는 법이다. 84년생 거리를 두었을 때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96년생 험하게 두드린다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1, 86</p>	<p>30년생 미묘한 차이로만 여겨 왔던 것이 큰 변수를 보이리라. 42년생 중단한 후에 명멸하게 판단하라. 54년생 체계적이어야만 의미가 있느니라. 66년생 관행에 얽매어 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일이다. 78년생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낫다. 90년생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대응하라. 행운의 숫자 : 09, 77</p>
<p>37년생 핵심 골자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49년생 무리하지 않음이 옳다. 61년생 일상에 충실하다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73년생 쉽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85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자. 97년생 계획대로 추진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75, 10</p>	<p>31년생 규모와 대소와 상관없이 중차대한 일이다. 43년생 형태에 적응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55년생 주변인들로부터 집중적인 주목을 받을 일이 있다. 67년생 삶이 한다면 굳이 행할 필요가 없겠다. 79년생 점진적으로 행하라. 91년생 쉽게 지나치기 쉬운 곳에 진취함이 있도다. 행운의 숫자 : 68, 45</p>
<p>38년생 중간만에 곧 결정이 날 것임에 틀림없다. 50년생 체계를 인식하고 기분에 충실해야 무탈하다. 62년생 중요한 시점이니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난 후에 체계를 잡아야 한다. 74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자. 86년생 갑자기 서두르면 무리가 따를 것이다. 98년생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2, 65</p>	<p>32년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이니 여유를 가져도 된다. 44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56년생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다. 68년생 항심으로 대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80년생 무슨 일이든지 확실한 결과를 보게 되는 날이로다. 92년생 끊고 맺음을 정확히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6, 36</p>
<p>39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해할 수 있다. 51년생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63년생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75년생 충동적이라면 무리한 판국을 조성하게 된다. 87년생 비유한 수준으로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99년생 상대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진땀을 빼졌다. 행운의 숫자 : 69, 21</p>	<p>33년생 윤행적이나만큼 변수의 폭까지 감안 해야겠다. 45년생 사면에 철저하 준비해야만 한다. 57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어느 순간에 기괴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69년생 모든 것을 보류하고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81년생 정도만 걸으면 아무런 하자도 없다. 93년생 생각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니 우려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15, 56</p>
<p>40년생 만족할 만한 결과이다. 52년생 차라리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64년생 파격적인 제안이라면 조건부 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76년생 유난히 마음을 끄는 바가 있을 것이니 꼭 살펴보자. 88년생 가까운 거리가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리라. 00년생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76, 21</p>	<p>34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46년생 북잡다한 일로 인해서 갑질을 못 잡을 수도 있다. 58년생 현상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다. 70년생 다수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82년생 집착한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94년생 뜻밖의 행운이 찾아 들 수도 있는 길일에 해당한다. 행운의 숫자 : 61, 03</p>
<p>41년생 일부터 나서면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53년생 상대의 논리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 65년생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 77년생 자꾸 빗나간 형태를 띠므로 다시 한 번 점검 해보아야 한다. 89년생 균형을 잃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자. 01년생 중간에서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2, 49</p>	<p>35년생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 후일을 기약함이 낫다. 47년생 기운이 틀고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도 괜찮다. 59년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다. 71년생 명분은 그친다면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83년생 묵직한 바는 보이지 않고 불편함만 나타난다. 95년생 상의해 본다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3, 43</p>